

청년 취업 ‘빙하기’ 10명 중 7명 ‘백수’

15~29세 고용률 광주 35.0%·전남 34.7%...전국 최하 수준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 10명 중 7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찾아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도 늘어 지역 노동시장의 불균형도 심화하고 있다.

12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광주가 35.0%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42.3% 보다 7.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남은 34.7%로 16개 시·도 중 전북(34.1%) 다음으로 낮았다.

세부연령별로 보면 15~19세의 경우 광주는 전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남은 0.8%포인트 상승했다. 20~24세는 광주는 전년과 동일하고 전남은 1.5%포인트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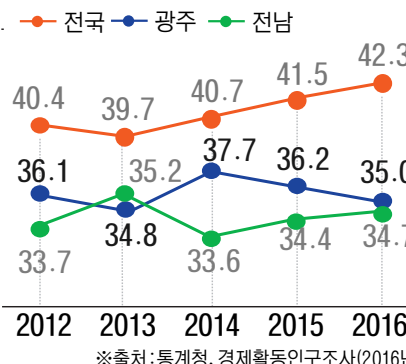
25~29세의 경우 광주와 전남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고, 특히 광주는 2.9%나 하락해 20대 후반의 일자리 어려움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을 그대로 보여줬다.

광주의 지난해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은 38.8%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뒤처졌다. 전국평균 46.9%에 비해 무려 8.1%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남 역시 38.8%로 전국 16개 시·도 중 전북(34.1%) 다음으로 낮고, 전국평균 보다 8.1%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청년층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다른 지역보다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수도권 등 다른 대도시로 떠나고 있고 그럴수록 노동시장의 환경은 피폐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버리면 지역에는 나이 든 사람만 남게 돼 활기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 고용률 추이(15~19세, 단위:%)



이는 20대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의 지난해 20대 전출은 3371명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유출이 두드러졌으며 전남은 10대,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은 인구가 유입한 반면 20대 인구 순이동은 7777명으로 유출이 심각했다. 한 해 1만명 가까운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는 미래 선호 직종을 중심으로 꾸준히 기업을 유치하는 장기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당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기업의 지역인재 할당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박시현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유치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전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4차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여성복지,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18 최후의 항전지
옛 전남도청 보존 밑그림 나왔다 ▶2면
금남로 밝힌 탄핵촛불 1만5천개 ▶6면
함께해요 통일의 길 - 박정민씨 ▶18면

野 대선주자들 ‘호남 대전’



전주의 文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앞줄 가운데)가 12일 전북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 등의 안내를 받고 있다.



광주의 安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북포럼 출범식 참석

안희정, 5·18 민주묘역 참배

국민의당

안철수, 광주 사이언스 토크쇼

손학규, 전북 망문 민심 다지기

야권 대선주자들의 ‘호남 대전’이 치열하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야권의 텃밭이자, ‘야권 민심의 풍향계’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각 후보들 모두 호남에 ‘울인’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4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12일 야권 심장부인 호남에서 격돌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최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권력개혁회의 의장도 이번 주 호남에서 또 한번 민심 잡기에 나선다.

특히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4개 순회 경선이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향후 호남 구애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12일 오전 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전북도청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 및 탄핵촉구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주중 문 전 대표

의 부인인 김정숙씨가 오는 15일께 광주를 찾아 민심 행보를 보이는 등 경선 선대본부 등 외곽 조직 등을 통한 호남에서의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햇볕정책 계승의지를 보인 뒤 광주 금남로 시국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안희정 지사는 이날 광주를 상징하는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경선대책본부 첫 연석회의를 갖고 광주교대에서 여성·청년들과 ‘즉문즉답’ 간담회에 참석해 젊은 리더십을 부각했다. 이어 광주시 지방의원 간담회를 갖는 등 당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스킨십’을 넓혀갔다.

안 지사는 1주일 이내 광주를 한번 더 찾아 공략하는 등 광주에 아예 경선 선대본부를 꾸리고 광주에 ‘울인’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손학규 의장이 합류하면서 대선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연속 호남을 찾은지 20일 만에 다시 13일과 14일 이틀간 호남을 찾아 민심잡기에 총력을 펴본다.

안 전 대표는 13일 광주 조선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길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사이언스 토크쇼’를 갖는다. 이어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사인 광주CGI센터를 방문하는 등 본인의 주된 메시지로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혁명과 ‘튼튼한 안보’ 등으로 민심을 잡을 계획이다.

손 의장도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전북을 방문해 호남 민심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검수사·탄핵심판 이번주가 본게임

특검, 박 대면조사·靑 압수수색·우병우 소환조사 판가름

헌재, 박 출석여부 밝힐 듯... 3월 초 심판 선고 중대 변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박영수 특검팀은 1차 수사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가운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조사 등이 모두 이번 주 중 성사 여부가 판가름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응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웅(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특히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 측이 이날 대통령의 현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하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이달 24일이나 27일 최후변론을 열고 3월 초께 심판을 선고할 거라는 예측은 어그러진다. 선고일이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연합뉴스

50
-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설화수 자음생크림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